

송미령 장관, 장바구니 안정 위해 한달째 현장행보

유통가 자체할인 등 적극 동참 요청

서울 아울렛 세이브존 노원점 방문 농축산물·가공식품 가격동향 점검 단가인하·할인지원 등 협조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2월 이후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점검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이는 사과·배 등 농산물을 비롯해 설량·소금 등의 가공식품 가격까지 급등한 데 따른 행보다.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 자극 요인을 정부가 나서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24일 서울지역의 아울렛 매장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할인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둘러봤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전 유통업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납품단가인하 및 할인지원을 중소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29일 송 장관은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못난이 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를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과(비정형과) 및 소형과 할인판매 현황을 점검 한 바 있다. 현장에서 그는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7일에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외 등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대과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일 서울 도봉구의 농협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자체할인 행사, 가격 인

하 노력 등 유통 및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14일에도 유통·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에는 대구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19일에는 제분업계를 찾아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가격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홍해사태에 물류비 2.5배 ↑ 무협-HMM, 해상운송 지원

중소 수출기업 물류차질 해소 위해 연말까지 2.5만TEU규모 선박 제공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 장기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차질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2만5000TEU 규모 선박(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이 지원된다.

한국무역협회는 HMM과 공동으로 25일부터 ‘중소기업 해상 운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장기화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차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KCCI)에 따르면, 2월 기준 한국발 유럽 노선 해상운임은 지난해 10월 대비 250.1% 상승했고, 한국발 미국 동부 노선 해상운임은 같은 기간 156.0% 상승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희망봉 우회로 인해 유럽연합(EU)

U) 항로 운항 일수는 수에즈 운하 통과 대비 편도 12~14일 추가되고 있어, 선박 순환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화물 선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협과 HMM은 공동으로 유럽·미국 노선에 매주 1000TEU(1TEU는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 규모 중소기업 전용 선박을 확보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무협은 HMM과 협의해 미국 서안 500TEU, 미국 동안 400TEU, 북유럽 50TEU, 지중해 50TEU 규모 선박을 확보했으며, 기업은 확보된 선박을 바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 화물을 선적하게 된다.

무협은 1차 선정 대상 95개사를 대상으로 3월25일부터 연말까지 총 2만 5650TEU 규모 선박을 제공할 계획이며, 중동 사태 추이에 따라 잔여 TEU를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내달 전국 축산농가 렘피스킨 백신 접종

농축산식품부, 예방·방제 등 추진 고위험 40개 시·군 129만두 접종

정부가 전국 40개 시·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소 전염병인 렘피스킨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후 시·군 34곳에서 107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 6455두를 살처분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렘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렘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백신접종, 제도개선, 위험도에 따른 예방·방제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0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렘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매개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에 백신을 접종한다. 그 외 지역의 소 267만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사육규모가 50두 이상인 농가는 4월 1~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한다. 50두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261개반 486명)을 편성해 4월 한 달간 접종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발생 농가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항만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이에 대비한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한 예방 및 방제를 집중 실시한다.

해외에서의 렘피스킨 발생 상황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발생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병원체나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 방제,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국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공정개선에 최대 1억

안전보건공 5월24일까지 신청접수 지원업종 3대→6대 업종으로 확대 50인 넘어도 중소기업이면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

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원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장항제련소 오염 피해자 진료비 지급

환경부, 군산의료원과 업무협약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충남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피해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오는 25일 전북 군산에서 군산의료원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북 및 충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과 토양으로 배출됐다. 이후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만성신장염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의 질환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대상 주민이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기대, 반도체 실습 클린룸 장비 6종추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 강화 융복합장치·공기조화기 등 구축

충남 천안 소재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강화한다. 한기대는 24일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장비교육·실습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에 6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장비는 반도체소자 제조를 위한 FAB 공정 핵심 장비인 융복합장치(PECVD/PEALD), 전기로(Furnace), 복합 스퍼터(Sputter), 노광기(AI

ignerSystem), 습식세정장비(Wet-Station), 공기조화기(AHUSystem)로 교육생들이 기존 장비와 연계해 공정 전체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클린룸이란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 등 정밀 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말한다. 지난 2010년 건립한 한기대 클린룸은 당시 양산용 PECVD, PVD 등 50여 종의 장비를 구축 국내 대학 중 몇 안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실습 전문시설로 주목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